

새문안동산 이장(移葬)예식서



1. 이 장 예 식

2. 화 장 장 례 예 식

3. 유 해 안 치 예 식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문안교회
SAEMOONAN PRESBYTERIAN CHURCH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 예 식

인도 : 말 은 이 자
인 도

개 식 사

오래전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계신 고○○○(성도)님[과 고○○○(성도)님]의 유해를 새문안추모관으로 옮겨 모시기 위한 이장에 앞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 도 신 경 -----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491장 ----- 다 함 께 성 경 봉 독 ----- 출애굽기 13장 18~19절 ----- 인 도 자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위로의 말씀 ----- 『요셉의 유언』 ----- 인 도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것은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옮겨 장사했다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옮기며 다시 한번 요셉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기대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죄짓기를 단호히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판 형제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새문안추모관으로 이장하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골을 옮기며 그의 믿음을 되새겨 본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금 고인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요셉의 가문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 송 ----- 492장 ----- 다 함 께 주 기 도 -----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91장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1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 2절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 3절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 후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492장 -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 1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아가리
-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곤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 후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화 장 장 례 예 식

인도 : 말 은 이
개 식 사 ----- 인 도 자

오래전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계신 고○○○(성도)님[과 고○○○(성도)님]의 유해를 새문안추 모관으로 옮겨 모시기 위한 화장에 앞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 도 신 경 -----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01장 ----- 다 함 께
성 경 봉 독 ----- 로마서 8장 35~39절 ----- 인 도 자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위로의 말씀 ----- 『끊을 수 없는 사랑』 ----- 인 도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톨스토이는 그 답을 ‘사랑’이라 제시합니다. 제아무리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을 허락하셔서 사람들로 서로 사랑하며 살만한 세상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은 아마도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강력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십니다. ‘환란’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천사’도, ‘현재’도, ‘장래’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인간 사이의 사랑을 갈라놓을 만큼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죽음도 주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주의 자녀가 젊었을 때나 노년에 연약했을 때에나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굳게 붙들며 나아가시는 유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 주 송 ----- 304장 ----- 다 함 께
기 도 -----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1절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유 해 안 치 예 식

인도 : 말 은 이
개 식 사-----인 도 자

오래전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계신 고OOO(성도)님[과 고OOO(성도)님]의 유해를 새문안추모관으로 모셔 안치하기에 앞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 도 신 경-----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19장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시편 23편 1~6절 -----인 도 자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위 로 의 말 씀----- 『선한 목자』 -----인 도 자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왕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그의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기도 했고, 자신의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 하여 광야에서 피해 다니며 살아야 했고, 왕이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후에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와 피난 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지은 시편 23편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지은 듯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초를 겪은 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위로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연약한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길 소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다윗왕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일합니다. 그가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한 ‘주의 자녀’이기에 주님은 선한 목자로 그를 동일하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추모관에 모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은혜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로 지금 천국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유가족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사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유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 송----- 222장 -----다 함 께
주 기 도-----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19장 -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1절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후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22장 -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 1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훈계로써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 2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 3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 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 4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후렴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올리는 말씀

문봉동 새문안동산에서 연일 개장·이장 작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먼지가신 선조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동산에 모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한 현장의 어수선한 모습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 관계자로서 마음속 깊이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새문안교인들은 선조님들과 믿음의 선진들께서 영면하시면 안장해 모셔오던 문봉동 동산이 영구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더이상 문봉동 동산에 안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교회에선 이미 10여 년 전에 추모관을 영장리에 건립하기로 하였고, 오랜 우여곡절 끝에 추모관이 준공되고 사용이 가능해져 2019년 12월 31일자로 문봉동 동산의 사용을 종료하였음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이에 교회는 동산에 모셔진 분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추모관으로 개장·이장하는 사업을 지난해 (2020년) 4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화장 후 분골로 모셔진 분들을 이장하였고,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장으로 모셔진 분들의 묘에 대한 개장을 공식 입찰과정을 통해 선정한 업체인 대한장묘산업으로 하여금 담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장작업에 앞서서 추모관 운영진은 합동추모예식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두고 목사님 등과 함께 고심 어린 논의를 하였습니다. 개장작업이 매일 이른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데, 일주일 중 이틀(목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닷새 동안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하루 평균 6~10기 가량 작업하게 되므로, 날짜 수로만 해도 총 120~160여 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장작업 전 지도목사님 주관으로 매일같이 합동추모예식을 드리는 것은 여러 여건상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골상태와 분묘상태로 모셔진 분들에 대한 대표예식의 의미로 두 차례의 합동추모예식을 드리기로 하여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개장 관련 합동추모예식을 지도목사님 주관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관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개장업체의 직원들이 분묘의 파묘를 시작하여 일정 분량을 파내고 그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0시경 유족들이 해당 묘역에 입회하게 되면 유족 중심으로 예배 또는 기도를 드린 후 유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유족들께서 예배드리기를 원할 경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문봉동 동산 및 추모관 현장 등에 '개장예식용', '화장예식용', '안치예식용'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놓고 있사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족들께서 느끼실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을 털어드리기 위해 좀더 세심하게 성심성의를 다해 배려해 드리고자 하여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않을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해 드리오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개장·이장과 관련한 모든 일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새문안추모관 운영진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